



쌍용자동차

보도자료

2011년 11월 8일(화)

쌍용자동차 3분기, 2007년 이후 분기 최대 매출실적 달성

- 2분기 연속 3만대 이상 판매, 매출 7,470억, 2007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 매출 기록
- 러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 판매 증가 및 코란도 C 수출 호조가 글로벌 판매 확대 주요인
- 판매증가에 따라 분기별 손익 점차 개선, 해외 시장 성장 통해 조기 턴어라운드 달성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이유일: www.smotor.com)는 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지난 3분기 경영실적이 ▲판매 30,367대 ▲매출 7,470억 ▲영업손실 306억 ▲당기순손실 354억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3분기 판매는 수출이 글로벌 신흥시장 및 코란도 C 수출 호조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56% 증가한 견고한 성장세를 이루면서 전 분기에 이어 연속 3만대 이상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특히 코란도C는 지난 6월 이후 월 3천대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에 이르는 등 수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매출액 역시 판매물량 증가와 환율 및 수출단가 조정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7,470억 원을 달성했으며 분기 기준으로 2007년 이후 최대 매출실적을 달성했다.

손익 측면에서는 매출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에서 향후 수익창출을 위한 제품 개발 투자비 확대 및 국제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재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306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지속되고 있는 판매증가세에 따라 분기별 영업 손실 규모는 지난 1분기(△419억) 및 2분기(△334억) 대비 점차 축소되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손실 증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 3분기 실적은 유희자산 매각에 따른 자산 처분 이익(1,125억)이 반영된 것으로 비교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자동차는 2011년 3분기 누계실적(1~9월)으로는 ▲판매 86,240대 ▲매출액 2조 962억 ▲영업손실 1,059억 ▲당기순손실 677억 등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은 “글로벌 판매 성장으로 2007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 매출실적을 달성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과 함께 중국, 인도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를 통해 판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원가절감 등 수익성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 2011년 3분기 판매 현황

(단위 : 대)

구 분	2011년		2010년		전년 동기 증감율	
	3분기	누계	3분기	누계	3분기	누계
판매대수	30,367	86,240	20,818	57,330	46%	50%
내 수	9,939	30,185	7,709	22,662	29%	33%
수 출	20,428	56,055	13,109	34,668	56%	62%
(CKD)	(60)	(720)	(690)	(1,532)	-20%	-22%

■ 2011년 3분기 손익 및 재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0년		전년 동기 증감율	
	3분기	누계	3분기	누계	3분기	누계
매출액	7,470	20,962	5,263	14,699	42%	43%
영업이익	-306	-1,059	741	260	-	-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354	-677	501	-159	-	-
당기순이익	-354	-677	501	-159	-	-